

함평군 생활안정기금 운용 부실

함평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 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으로 지원한 응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부실한 관리가 입찰에 오르고 있다.

군은 지난 1993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오다가, 1997년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해 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을 통합 관리·운영하고 있다.

지난 93년 이후 지원된 응자금은 올 9월 현재 총 377건, 69억여원에 달한다. 이중 105건 22억여원이 회수됐고, 171건 26억여원의 상당의 응자금은 아직 납기와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101건, 21억여원은 무려 16년을 넘기면서까지 원금과 이자가 회

저소득층 지원 응자금 69억 중 22억 회수

일부 채무자 파산·도피로 수억 떼일 수도

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체납금 중에는 일부 채무자의 파산·도피·사망 등으로 지불이행능력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군이 자칫 수억원을 폐일 우려도 높다.

대부분의 체납액 중 소득지원 자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있어 자금회전을 위한 군의 다각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함평에 사는 김모씨는 "채무자에 대한 담보 등 지원자를 제대로 검증한 뒤 응자금이라면 이같은 예산상

비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정이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응자금 회수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자금회수를 독촉해 기금운용이 본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초창기 때 담보 없이 인우보증을 세워 자금을 받고 사업을 하다 한 사람이 부도가 나면 출들이 무너져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회수를 못 하고 있어 지금까지 체

납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

/함평=황운희기자 hwang@



함평 나산강에서 즐기는 카약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함평군 나산면 '나산강 생태 레저스포츠 체험장'에서 동호인들이 카약을 즐기고 있다. 함평군이 농촌 생태관광 상품 응모사업을 통해 선정한 체험장에서는 레저카약, 자전거, 트레킹, 래프팅 등 다양한 무동력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함평군 제공>

"조상 묘 벌초·관리 해 드립니다"

전남농협 '산소관리 서비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7일 "관내 74개 지역농협에서 조상의 묘를 대신 벌초하고 관리해 주는 '산소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별초 비용은 산소의 위치와 규모, 기수 등에 따라 다르나 1기당 평균 5만원 선으로 농협 원로청년부나 영농회원이 담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을 올려 신청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함평농협은 비롯한 6개 조합에서 벌초, 산소이장, 석축조경, 석물 등 산소관리 관련 종합 서비스도 해

준다.

산소관리를 원하면 농협 담당자와 산소위치, 비용, 실시결과 통보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전화로 협의하면 된다.

산소관리를 하는 농협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www.jangrae.co.kr)의 산소관리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협 관계자는 "후손들이 직접 산소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다 최근 농촌의 고령화로 고향 주민에게 부탁하기도 어렵게 되면서 농협에 신청이 들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

'땅끌누리' 상표 사용 조례 제정

해남 농수특산 품질인증

해남군 농수특산품의 '브랜드 파워'가 높아지게 됐다.

해남군은 해남산 농수특산물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해남군 농수특산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군은 지금까지 상표에 대한 인증 조례가 없어 공신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단점을 없애고자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땅끌누리' 상표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수특산물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

가 쉽게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품질인증 대상 품목과 표시 방법, 품질인증 상표 사용승인·취소, 유효기간, 인증 대상의 사후 관리 및 홍보,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땅끌누리 상표를 사용하려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남군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은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품질이 저하되면 취소할 수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2008.11월부터 2,000㎡(605평) 이상 건축시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2명 이상
채용하여야 건축허가 가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
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의거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꼭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또한, 제5조에 의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 교육일정 2009. 9. 7.부터(월·수·금) 총60시간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국토해양부 지정(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 원 장 이 명 규 교 수 062-670-2421
• 문/의/전/화 www.gred.kr • 부원장 강 동 육 번호사 062-233-3119
• 사무국 김 병 철 062-233-3119

HOMECON 흠컨 不動產 리서치
TEL:062-233-2222 H-P:011-616-8698

태양광발전소 부지 급구함

- 지역 : 전.남북. 기타지역
- 용량 : 100KW이상~ 무제한
- 조건 : 민원해결

개발행위허가
발전사업허가
완료된 곳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0-7 유지빌딩 501
(상무지구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옆)

남창계곡에 '사계절 온천단지'

장성, 스포츠센터·야영장 등 종합휴양공간으로

장성 남창계곡에 온천시설을 비롯해 스포츠센터, 호텔 등을 갖춘 '사계절 온천단지'가 들어선다.

장성군은 "897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오는 2014년까지 북하면 신성리 남창계곡 일원 13만5천㎡에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조감도**)

현재 온천원 보호를 위해 보호지구 지정과 시설을 완료한 상태로 오는 2010년까지 전체개발대상지 매입을 완료하고 1차 사업을 착수 할 계획이다.

온천개발사업은 6만7천500㎡씩 2차에 나눠 사업이 진행되며 2014

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온천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대온천장을 비롯해 노천탕, 온천풀, 스포츠센터, 호텔, 펜션단지, 기념품 판매점 등이 조성된다.

또한 야영장, 체험학습장, 잔디광장도 함께 조성해 단순한 온천욕에서 벗어나 안락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휴양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온천개발사업 대상지가 백양사, 장성호, 축령산 등 장성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인접해 있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질 높은 여가 활동을 위한 위락공간이 될 것으로



로 기대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온천개발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시행자와 유기적 협의를 통해 사업이 초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전남 농수특산물, IPTV 통해 판매

KT와 실무협의 마치고 30개 품목 이달부터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IPTV(초고속 인터넷망) 이용해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를 활용한 지역농수특산물 판매에 나선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KT 그룹의 IPTV '쿡(Cook)'을 통해 전국 최초로 농수특산물 쇼핑 방송을 추진한다. IPTV는 인터넷을 이용해 방송 및 기타 콘텐츠를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

결한 KT 그룹과 최근 쇼핑 방송 추진을 위한 품목 선정, 판매 수수료, 영상제작 등 실무협의를 마치고 이달 중순부터 지역농수특산물 30개 품목을 집중홍보·판매할 예정이다.

판매 품목은 한우·갓김치·율금·배·햅쌀·표고버섯·천일염·합초·전복·굴비 등 전남지역 대표적 농수특산물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홍보·판매용 영상제작비로 판매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KT 그룹에서도 영상제작비 100만 원 지원과 함께 5~19%의 초저가 판매 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판매 방송은 업체당 매주 200분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박군조 전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은 "IPTV 쇼핑방송은 아직 시장 개척 초기 단계로 TV 홍보방송과 같이 단기간 대량판매는 어렵지만, 새로운 유통망 선점에 큰 의의 있다"면서 "장기간 홍보·판매방식이 가능하고 방송추진에 따른 비용도 저렴해 생산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삿갓' 종명지 복원

화순 동복에 안채·사당 등 유적지 정비

"무등산이 높다더니 소나무가 아래에 있고/ 적벽강이 깊다더니 모래 위에 흐르는구나"(無等山高松下在/赤壁江深沙上流)

화순군이 조선후기 풍자시인 '김삿갓'(본명 김병연 1807~1863)이 운행한 종명지(終命地) 복원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화순군은 올해 사업비 5억원을 들여 동복면 구암리 647번지에 안채, 사당, 사당을 비롯한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방랑시인 김삿갓' 유적지 정비사업을 완료했다.(**사진**)

내년에는 2억2천200만원의 예산으로 '삿갓동산'을 짓어 화순이 김삿갓의 주요 작품 무대였음을 널리 알리고 기념할 계획이다.

군이 김삿갓 유적지 정비사업에 불вшего 것은 1857년부터 1863년까지 6년 동안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에 정착·생활하며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는데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조선 8도를 두루 섭렵한 김삿갓이 화순 동복을 3번이나 방문하였던 역사적 사실은 그가 이 고장을 얼마나 흡사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를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선망부도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벌초를 하지 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봉괴된 묘, 개인이기주의의 만연과 전통적인 접두의식 및 친족, 이웃 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반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접종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뿐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주지 합장



대한불교종교재단 문빈정사 납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